

모두 발언

2024. 3. 21. (목)

주택건설희관 대회의실(5층)

상기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은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 융 감 독 원

원 장 이 복 현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건설협회장님, 주택건설협회장님,
건설회사 대표님,
여신금융협회 및 저축은행중앙회장님,
금융지주회장님과 은행장님,
그리고 자산운용사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건설업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건설업계와 금융권이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하였습니다.

Ⅱ 現 시장상황에 대한 인식

잘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금융권 PF 연체율은 2% 후반대로
금융시스템 측면에서는 관리가능한 수준이지만,

高금리 및 공사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현격히 악화된 PF 사업장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 자금이 부실 사업장에 장기간 묶이게 되면서
건설사 및 금융회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설업계와 금융권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무엇을 함께 해야할지를
기탄없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Ⅲ

추진 과제

금융감독원은

부실 사업장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PF사업장의 사업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현장검사를 통해

PF금리와 수수료 등이

대출 위험에 상응하여 공정과 상식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건설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융권은 정리·재구조화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한편,
금융권 정상화 지원펀드의
구성규모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맺음말

PF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성공적인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손실 분담을 통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간 멈춰있던 PF 사업 진행이 재개되면,
건설업계와 하청업체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기탄없는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찾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